

무주군, 공감행정 실현 박차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

무주군은 24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주의 기존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공약을 평가·심의하게 됐다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촉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주민배심원들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개최됐으며,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관한 특강, 그리고 본인토의 및 주민배심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주민배심원제는 공감행정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실현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것인 만큼 주민배심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선 7기 무주군은 소용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을 가장 핵심에 두고 갈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무주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주민배심원은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공약실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주군(주최)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에서는 무주군 거주 19세 이상 주민 중 성별과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민배심원40명을 선발(1차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189명 모집,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 전현직 선출직 공직

자,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 제외)했다.

24일 분임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무주군 주민배심원단은 11월 7일 주관 부서로부터 △무주군 보훈회관 및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도시민 퇴직자 실버타운 조성, △특성화고교 시행 등 분업별 심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분임활동으로 심층면담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또 11월 21일에는 소관별 건에 대한 토의와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승인여부 결정, 공약이행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주민배심원들은 "고향 무주의 발전, 나와 가족,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부족한 역량이지만 보낼 수 있게 됐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사준공식 전국노래사랑

하춘화 등 유명 가수 총집합

장수군 청사 준공식과 함께 열리는 KBS 전국노래사랑에 하춘화 등 유명 가수들이 총집합한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0일 의암공원에서 열리는 장수군청사 준공식 기념 KBS 전국노래사랑에 가수 하춘화와 배일호, 추가열, 김양, 윙크가 초청돼 흥겨운 축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리랑 동동', '날 버린 남자', '불효자는 울다', '나이야 가라' 등 히트곡을 낸 국민 가수 하춘화와 '신토불이', '꽃보다 아름다운 너', '폼 나게 살거야' 등 인기곡 주인공 배일호,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의 추가열, '우지마라'의 김양, '부끄부끄'의 윙크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이번 전국노래사랑은 11월 8일 예심을 거쳐 선발된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본선 녹화는 10일 오후 1시부터 의암공원에서 초청 가수의 축하 무대와 함께 진행된다.

예심 참가 접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까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예선 접수를 못한 참가 희망자를 위해 예선 당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되며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장수군에 주소소재자를 우선 원칙으로 접수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063.350-2220)에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가 2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동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안 의결, 14건의 조례·규칙안, 1건의 동의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14건의 조례·규칙안 중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개의 조례·규칙안을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줄 예정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13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유승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이 나지 않도록 골똥을 기울이고 불하게 만들고 땀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지혜와 자세로 현장방문에 임할 것"이라며, 집행부에는 "조직개편과 인사로 새로운 진용과 전열을 정비한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해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여성 1인 점포 풋-SOS 비상벨 설치

지난해 이어 10개소 추가

진안군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에 방범장비인 풋-SOS 비상벨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풋-SOS 비상벨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3초간 발판을 밟으면 112 상황실 또는 인근 파출소로 자동 신고 되는 방범 장치다.

지난해 2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커피숍, 미용실, 옷가게 등 10개 업주의 동의를 받아 추가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방범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에 방범장비인 풋-SOS 비상벨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23회 무주반딧불 한우경진대회가 24일 무주읍 지남공원에서 개최됐다.

무주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성료

총 26두 중 9두 우수축 선정

제23회 무주반딧불 한우경진대회가 24일 무주읍 지남공원에서 개최됐다.

무진장축산농협 무주지점이 주관해 4백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린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최소 송아지 6두를 비롯해 암송아지 10두, 미경산우 10두 등 총 26두가 출품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출품 한우들은 예비심사(무진장축협)와 본 심사(한국중축개량협회)를 통해 우열을 가렸으며, 최종 9두가 우수축으로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 중 적상면 운영석 씨의 최소 송아지, 무주읍 신현말 씨의 미경산우, 무주읍의 신우석 씨의 암송아지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운영석 씨는 "그동안 공들여 키우 보람이 있어 좋다"라며 "내가 키운 소가 지역특화 축산 브랜드 육성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장에는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축산물 시식코너(통삼겹, 한우불고기, 통돼지 바비큐 등)가 부대행사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진안군,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12월 7일까지 신청

진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12월 7일까지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2008년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외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관내 학부모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군민이며 국가기관 등에서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신청은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며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